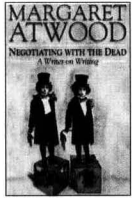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글 쓰기, 그 욕망에 대하여

양희정 민음사 편집부



원제 Negotiating with the Dead

저자 Margaret Atwood

출판사 Cambridge

University Press

출간년도 2002

“거의 완전한 고독이라는 구덩이 속 맨 밑바닥에 빠져 있을 때라야, 오직 글쓰기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연인》의 작가 뒤라스의 말이다. 애트우드 역시 책에서도 우리는 이처럼 고통스러운 글쓰기에 대한 작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녀 이야기》, 《도둑 신부》, 《캐츠 아이》 등으로 알려진 마거릿 애트우드의 소설은 영미권에서 출간만 되면 베스트셀러이며, 문학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캐나다가 자랑할 만한 작가다. 애트우드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강의한 내용을 담은 이 책은 ‘40여 년 동안 광산에서 단어를 캐온 사람’이 글을 쓰고 싶어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이중적 자아, 지킬 박사와 하이드〉, 〈아폴론과 암몬, 작가는 누구의 신전을 향해 경배를 해야 하나?〉, 〈오즈의 마법사 프로스페로와 메피스토 펠레스 주식회사〉와 같은 장황 제목들이 대작가의 속내를 슬쩍 드러낸다.

작가란 무엇인가? 셀리의 말처럼 ‘승인받지 못한 이 세계의 입법자’인가, 아니면 신경질적인 패배자인가? 큰 도서관에서 수많은 책들을 둘러보면서 과연 내가 여기에 합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는 사람? 글은 왜 쓰는가? 17세기 남성 작가들처럼 뮤즈로 인해 잉태했으니 작품을 출산한다? 〈노수부의 노래〉를 부르는 콜리지처럼 이야기가 붙들고 나를 놔주지 않으니까, 아니면 사뮈엘 베케트처럼 ‘글쓰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모든 것’ 이니까?

흔히 소설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마치 미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도 같으며, 글쓰기는 어떤 실체를 움켜잡으려 하는 것과 같다고들 한다. 애트우드는 이 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글쓰기가 어둠, 욕구 또는 그곳에 들어가고픈 욕망, 그리고 운이 좋다면 그곳을 밝히고 뭔가를 빛 가운데로 꺼내고픈 욕망과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 책은 그런 종류의 어둠과 그런 욕망에 관해 쓴 글이다.”

이 책의 1장은 애트우드가 자신만의 언어를 선택하게 된 계기를 말하면서, 작가의 삶과 작품 간의 관계를 강조한다. 2장은 후기 낭만주의 작가들의 유산인 이중적 자아의 문제를 소개한다. 3장은 예술정신과 상업성 사이의 긴장에 대해 말한다. ‘돈 문제를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은 마치 더러운 속옷 빨랫감을 보이는 것처럼 저 아래 얘기’지만, 이제는 마돈나의 속옷을 내다 팔 수 있는 시대다. 월터 스콧 같은 가난한 작가들이 빛을 갖기 위해 죽어라 글을 써대야 했던 것처럼, 돈은 작가의 삶에 결정적인 요소면서 또한 작품 안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4장은 작가를 사회적, 정치적 권력 안에서 환상을 좇는 사람으로 보거나, 참여자로 보거나의 문제를 다룬다.

볼테르가 ‘예술의 영역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악마에게 자신을 내주어야 한다’고 단언한 것처럼, 예술가가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에는 ‘돈과 권력’이라는 악마가 손을 뻗는다. 반대로 작가가 자신의 생산물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점은 ‘도덕적, 사회적 책임’이란 라벨이 붙은 곳이다. 5장은 작가, 독자, 그리고 그 매개로서의 책이라는 순환고리에 대해, 마지막으로 6장은 내러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애트우드가 광범위하게 인용하고 있는 많은 작가들의 삶과 작품, 그리고 신화는 읽는 재미를 더해 준다. ‘작가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집요하게 추적하는 애트우드의 노련함과 박식함 또한 유쾌하다. 한마디로 글쓰기에 대해 반추하게 만드는 책이다. **이문**

최혜진_예담출판사 편집부



원제 Marc CHAGALL, Les fables de La Fontaine(마크 샤갈, 라퐁텐 우화)

저자 디디에 술만


출판사 프랑스 국립박물관 협회

출간년도 1995

3월부터 파리 그랑 팔레에서는 마르크 샤갈의 작품 180여 점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샤갈에 관해 알고 있는 혹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란 기획으로 유태계 러시아 화가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1887~1985)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선보이는 이 전시에서는 1920년대 말 화상畫商 볼라르의 제안으로 라퐁텐의 우화를 그린 샤갈의 삽화 작품들이 함께 전시되고 있다. 《마크 샤갈, 라퐁텐 우화》는 바로 이 전시를 기념하여 재출간된 책으로, 표지에서부터 몽상적인 분위기로 현실과 비현실을 넘나드는 듯한 샤갈 특유의 분위기가 다감한 매력을 전해 준다.

1926년 프랑스 화상이자 출판인이던 앙브루아주 볼라르는 마르크 샤갈에게 라퐁텐 우화의 일러스트 100점을 의뢰한다. 샤갈이 파리로 망명한 직후의 일이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많은 그림이 사장되거나 유럽으로 흩어지는 비운을 겪기도 했다. 볼라르의 제안에 따라 샤갈은 100점의 과슈화를 작업했지만 사용된 색들이 너무 복잡해 인쇄과정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1931년 흑백 동판화로 완성했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샤갈의 과슈 작품들은 1926에서 1927년 사이에 완성된 것으로 1930년에 파리, 브뤼셀, 베를린에서 이미 전시된 바 있다.

러시아 태생의 화가로 프랑스에서 활동한 마르크 샤갈은 동시대의 가장 독창적인 화가들 중 하나로 괴이하고 환상적인 화풍을 선보였다. 특이한 생동감과 시각적인 그림을 그린 그는 보편성과는 거리가 멀다. 비현실적인 신화의 세계를 비롯해, 순박한 시골의 정서와 세련된 도회적 감성이 병존하는 상징적인 작품들로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화가이다. 세련된 친진난만함을 주된 화제畫題로 삼았던 마르크 샤갈은 1931년 《나의 삶Ma vie》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출간하기도 했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인물이나 하늘을 나는 염소, 인간과 교감하는 동물 등 샤갈의 작품은 '초현실적인' 이미지로 가득한 소박한 동화의 세계를 보여준다. 또한 자유로운 공상과 풍부한 색채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풀어주는 매력을 발산한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우화작가 라퐁텐의 환한 지혜가 가득 담긴 44편의 우화가 샤갈의 그림과 만났다. 세기의 작가와 화가의 절묘한 만남이 아닐 수 없다. 몽환적인 화풍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원색의 그림 44편과 짝을 이룬 라퐁텐의 우화들로 색다른 동화의 세계를 선보이는 이 책은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서 소장가치를 지닌다. 원색의 물감이 자유분방하게 어우러진 그림을 통해 샤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름 아닌 〈샤갈의 우화〉이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과거의 아련한 추억과 행복으로 우리를 꿈꾸게 만든다. 유머와 풍부한 시정詩情, 잔잔한 울림으로 이미지와 이야기를 넘나드는 구성의 책으로, 파리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인 디디에 술만의 깊이 있는 해설이 알려지지 않은 샤갈의 면면을 들려주며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가볍고 재미있으면서 유익한 자기계발 지침서

서은미 청림출판사 편집부



원제 *L(i)ebe das Leben*(삶을 사랑하라)

저자 페터 키나우어(Peter F. Kinauer)

출판사 mvg

출간년도 2002

‘내가 손대면 다 엉망이 되지. 나는 실수투성이 인간이야...’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 앞에 서면 제대로 말을 못 하겠는걸...’ ‘항상 실수만 했기 때문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내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 등등.

일상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힘들게 한다. 쉽게 해결되지도 않고, 매번 반복되는 그러한 일상의 문제들은 종종 자신과 자신의 생을 ‘미워하게’ 만들기도 한다.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독일어권 유럽 지역에서 동기부여 트레이너로 명성을 얻고 있는 성공학 강사 페터 키나우어의 《삶을 사랑하라》(또는 ‘삶을 살아라’. 원제의 *L(i)ebe* 에서 괄호 안의 *i*가 있으면 ‘사랑하라’의 뜻이 되고 생략되면 ‘살아라’의 의미가 된다. 살아가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임을 말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 아닐까?)는 이처럼 우리가 흔히 겪고 있는 심각한 자기비하와 패배의식의 문제들에 대한 독특한 처방을 제시하는 자기계발 지침서이다.

현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심리적 압박의 73가지 상황을 나열해 놓은 이 책의 목차를 처음 보았을 때에는 ‘내 문젠데’ 하는 반가운 생각과 더불어 다소 의아함을 느꼈다. 모든 사안과 경우를 정이 떨어지도록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매사에 합리성과 논리성을 들어 사사건건 따지는 유럽인들 역시 이처럼 뚜렷한 근거도 없는 두려움과 압박감에 시달린다는 것이 쉽게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모든 문제에 그토록 이성적으로 원칙과 실리를 내세우고 자기 삶의 기준은 오로지 자기 스스로 정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기에 더욱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로 혼란을 겪는 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튼 현대인들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다양한 상황을 나열한 뒤 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실습’과 ‘처방’에 초점을 맞춘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누구라도 자신의 일상 속에서 어렵지 않게 실천해 볼 수 있는 조언을 최소한 몇 개씩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삶을 사랑하라》는 재미있고 유익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지, 자신의 삶에 어떤 식으로 효과적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지, 직장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지 등에 관해 이 책은 매우 다양한 도움말을 해주고 있다. 어떤 부분은 너무 당연하고 단순한 이야기여서 피식 웃음이 나기도 하지만, 책 전체를 꿰뚫고 있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충분히 유익하다.

저자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해결책들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발상의 전환’과 ‘상상력의 활용’이다. 풀어서 말하자면 과거의 좋은 경험들, 그리고 미래의 꿈들을 머리 속에 그려보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와 여유를 찾으라는 것이다. 바쁜 일상에 휩쓸려 가느라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젊은 현대인들에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으며,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소박한 진리를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함께 전해주고 있다.

자신의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경영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간단하지만 독특한 한 권의 지침서인 이 책을 통해 삶의 여유를 최대한 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행복을 만끽해 볼 수 있다. **★**

《철도원》의 작가, 아사다 지로의 어린시절을 만나다

서민경_출판사 편집부



원제 가스미초 이야기 霞町物語
 저자 아사다 지로 浅田次郎
 출판사 고단사 高談社
 출간년도 1998

'가스미초'라는 지명은 이미 도쿄의 지도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때, 아니 이제는 그 시대라고 부르는 게 좋을 지도 모른다. 비행기 사고로 죽어버린 오티스 레딩의 목소리가 빌딩 계곡 속에 잠겨가는 내 고향과 묘하게 닮아 있던, 그 시대의 이야기다.

소설은 이렇게 시작한다. 안개가 자주 스며드는 도쿄의 한 마을 가스미초에서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주인공 소년은 소녀를 만나 사랑을 나누고, 헤어지면서 성장의 아픔을 겪는다. 소년은 옛날 영화의 스틸 사진 같은 청춘의 기억을 담담히 털어놓는다. 그러나 추억은 영화의 스틸 사진처럼 불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의 추억은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들을 이어간다.

《가스미초 이야기》는 이제는 너무나 유명해져 버린 아사다 지로가 처음으로 쓴 자전적인 소설이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소설 현대>에 발표했던 여덟 개의 단편을 1998년에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이다. 단편 소설집이지만 한 명의 소년이 소설집 전체의 주인공으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보면 장편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덟 개의 단편에는 1960년대 도쿄 가스미초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아사다 지로의 분신인 한 소년의 아름답지만 쓰라린 청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사진관을 운영하는 할아버지와 아름다웠던 할머니와의 추억, 대를 이어서 사진을 찍는 소년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사다 지로의 서정적인 필치로 그려져 있다. 특히 소년이 살아온 18년간을 사진으로 담아 소년에게 더없이 큰 사랑을 쏟아준 소년의 할아버지가 마음 속 깊이 남는다. 가스미초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할아버지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의 행사 때마다 사진을 찍어주었지만, 집집마다 카메라가 보급된 지금은 더 이상 손님이 오지 않는 텅 빈 사진관을 지키고 앉아 있는 게 유일한 낙이다. 치매에 걸려 가끔씩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할아버지는 소년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낮은 목소리로 들려준다.

자신의 뒤를 이어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기 위해 일본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위(소년의 아버지)에게 '사진은 성능 좋은 카메라로 찍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찍어야 한다'고 단호하지만 애정 어린 조언을 주기도 한다.

영화로도 제작된 《철도원》 때문에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아사다 지로는 1951년 도쿄에서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시절에 집이 몰락하여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그는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몰락한 명문가의 아이가 소설가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글귀를 보고 소설가가 될 생각을 하였다고 한다. 그후 야쿠자 생활의 경험을 살려 쓴 《찬란한 황금빛》을 발표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다.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사다 지로의 소설들은 참 따뜻하다. '세상의 독자들에게 복음(福音)을 전파하지 못한다면 소설의 가치는 없다. 소설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작품관을 가지고 소설을 쓰기 때문이리라.

실제로 사진관집 아들이었던 소년 시절의 아사다 지로를 만나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